

전인도 한인 선교사 협의회 (KMA)

문서 번호 : 2020-08

발신 : 전선협 정인우 회장

수신 : 전 인도 각 지역 회장단

우리는 지금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전통적인 사회 지형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새로운 정권 아래서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타주의, 권력의 중앙 집중화, 힌두국가화, 전제화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0년 12월 19일(토), UP 주 Greater Noida에서 한국인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구속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생님은 인도인 사역자 3명과 함께 교회에 나왔던 인도 여성들을 심방하러 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개종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신고를 받아 4명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사역지에서는 Lockdown이 된 이래 지난 약 8개월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UP 주에서는 2020년 11월 28일, **반개종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과격파들이 마을 사람들을 조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반개종법이 시행되고 발생한 첫 사건이라서 본보기로 무게있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재판도 시작되기 전인데 ‘개종 문제’라고 단정짓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RSS 문건 중에는 ‘2020년까지 인도를 힌두국가로 만들겠다.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은 개종 하든지, 아니면 인도를 떠나라’고 그들의 agenda를 밝힌 기밀문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 힌두 극우 단체인 RSS의 지도자는 국영 미디어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없는 인도를 만들겠다고 다시 공언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현 정권에서 이상하리만큼 그대로 실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조치들

앞서 말 한 것처럼, 2020년 11월 28일, UP에서 **반개종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히마찰프라데시(2007), 우따르칸드(2018), 구자라트(2003), 마디아프라데시(1968), 차디스가르(2000), 자하르칸드(2017), 오디샤(1967), 아루나찰프라데시(1978)에 이어 총 29개 주들 가운데 9개의 주에서 반개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UP주에서 도입한 이 반개종법은 일차적으로 무슬림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소위 결혼을 빙자해서 무슬림 인구를 퍼뜨리는 것 Love Jihad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법이 공포되고 난 다음, 12월 초에 무슬림 청년 4명이 잡혔는데 모두 반개종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는 상식적인 얘기가 탄식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현 정권은 시민권 개정법 Citizenship Amendment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발효하려다가 무슬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이 표면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미 살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엄격한 출생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슬림들이 쫓겨나야할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조치들

2020년 9월 7일 현재, FCRA 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 Act를 등록한 22,457개의 **NGO**들 중 20,674개 단체의 FCRA가 취소되었습니다. 무려 92%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교회 CA의 말을 빌리면, 정부는 조만간 모든 NGO들에게 다시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설립목적에 따른 그동안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재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반개종법은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선생님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 지역 힌디신문에서는 개종을 위해 10랙의 선물을 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FIR First Information Report/고소장에는 제목이 ‘돈과 교환하는 종교 개종 상황’으로 적혀있고, ‘개종할 경우에는 10랙을 더 준다는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힌두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입니다. 반개종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번 사건을 그 frame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기관인 ‘인사, 고충처리 및 연금’부 Ministry of Personnel, Public Grievances & Pensions 산하 행정개혁 및 고충처리 부서 Dept. of Administrative Reforms & Public Grievances에서 **CPGRAMS** Centralised Public Grievances And Monitoring Systems라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것의 주된 목적은 개종행위를 일반인들이 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조해 한 극우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Mission Kaali**’라는 운동은 일반인들에게 기독교 웹사이트 방문, 관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취합, 증빙서류 및 사진 첨부 등등을 통해 어떻게 그들을 **CPGRAMS** 사이트에 고발할 수 있는지 자세히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Mission Kaali’가 일반대중에게 호소하는 것은 개종 ‘깡단,’ 개종 ‘마피아’들을 찾아내 비자를 취소시키고, FCRA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 과격 힌두들이 품고 있는 정서입니다.

이렇게 장황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에서 해오던 기존의 접근방식을 신중하게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각자 부르심이 다르고, 섬기는 사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의 상황은 개인의 확신을 따라 무슨 일이든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서 사역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서로 조심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북인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현재 인도 상황 때문이며, 또한 어느 개인이나 단체를 폄하하거나, 제약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겸손한 자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역

2012년 저는 인도선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에 참석하여 인도인이 보는 한국 선생님들의 사역에 대한 feedback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들 중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현지인을 하인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가지고 현지인을 통제하기보다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사랑’과 ‘충성’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그들을 훈련하는 일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bonding이 없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세기 초에 비두니아와 본도의 총독이었던 Pliny는 당시 황제인 Trajan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황제 트라잔은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지 말고 그냥 두되, 고소당하면 처벌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화평하기를 힘썼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인도 상황을 생각하면 이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현지인들을 존중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둘째, 금전적 혜택에 대한 조심

반개종법의 요지는 강요나 유인책으로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아래에서 우리는 금전적 혜택을 주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특히 반개종법이 시행되고 있는 9개 주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선물을 나누는 일이 개종과 연관성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금홍, 구제사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려는 일과성 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급한 열매를 보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했다는 결과물을 남기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위에서 말한 바, 사랑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속성있고, 은밀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인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어려우면 인도단체나, 다른 분들과 연합하는 사역을 권장합니다.

지금 북인도에서 문제가 된 케이스의 경우, 힌두신문의 기사를 참조하면 그 지역에 이미 많이 뿌려진 선물꾸러미들로 인해서 이것이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조직적인 자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과격 힌두단체들에게 의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은 배후세력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지역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인권변호사협회에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분명히 경찰은 무슨 돈으로 여기 와서 살고, 활동하느냐? 배후에 누가 돈을 대주기에 그렇게 돈을 쓰느냐를 심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자법 위반, 반개종법 위반, FCRA 위반 등 복잡한 이슈가 제기됩니다.

셋째, 공개적인 사역 지양

인도 정부는 2015년경에 이미 비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내무부, 외무부, 정보부, 해외공관, 출입국관리소 이 다섯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역소개를 한다면, 한국주재 인도 공관에서 한국인들을 시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공개하다가 만약 인도 정부의 레이더망에 잡히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언급된 다른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인도 안에서는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이버용사들 cyber warriors입니다.

공개적인 사역을 지양한다는 것은 또한 선생님들이 전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사람을 길러서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와 짐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생기면 사역의 짐은 벌써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것은 현지인이 주님께 헌신하기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양육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협력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우리들의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신 선생님들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하다가도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허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상식과 법에 맞는 생활

우리가 ‘외국인’이라고는 하나 ‘외교관’이 아닌 한, 치외법권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도에 살면서 꾸준히 일을 하려면 법과 상식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법에 맞는 생활’이란 비자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가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일전에 저의 비자가 문제되었을 때, Inquiry가 있으니 FRRO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거의 30분 동안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예를 들면 빈 노트를 주면서 ‘당신이 공부했다면 지도교수의 이름과 논문 제목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걸고 있었다면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창기 복인도에서 힌디공부를 하던 분들 중에는 등록만 해놓고 나오지 않는 한두 분 때문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분들이 늘 꾸중을 들었습니다.

‘상식에 맞는 생활’이란 다른 사람들, 특히 현지인들이 보기에 납득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가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밖에는 나가지 않고 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내세우는 신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수준이 일치하는지를 돌아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 곳에 흩어져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좇아 섬기시는 이방 땅, 서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0-21)

2020년 12월 22일

전인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전선협)



회 장: 정인우
부회장: 박광수
부회장: 곽효준
총 무: 이응복
회 계: 정정일
서 기: 정필우